

통화, 개혁으로 인삼산업 고품질 발전 추진

○김화빈 (길림양정우간부학원 교수연구부 부주임)

성당위 12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 기제 전문 항목을 구축하고 인삼시장의 신용체계, 인삼 규범화 재배체계, 인삼 정밀가공 산업체계, 인삼브랜드 마케팅체계를 건립하여 '길림·장백산 인삼'의 황금간판을 빛내야 한다고 제기했다.

통화시는 길림성의 인삼 주요 생산지로 2023년 인삼 종합생산액이 350억 원에 달해 전 성의 절반을 차지했다.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통화시 당위와 정부는 끊임없이 개혁을 심화하고 새로운 조치를 모색했다.



인삼 재배에 적합한 토지를 등급에 따라 확보

토양은 인삼의 품질과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화시는 자원과 환경의 수용 능력과 산업 발전의 현실적인 요구에 기초하여 인삼 재배에 적합한 립지 자원의 계획과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인삼 재배에 적합한 립지를 '3급 9등'으로 확보했다. 통화시 범위내에서 립지 자원의 전면 조사 사업을 전개하여 총 3,035개의 토양 표본을 채집하고 농폐물과 중금속 등 지표를 검측했다. 길림인삼연구원은 데이터 분석과 연구를 통해 '통'자와 '전지인', '갑을병'을 결합하여 인삼 재배에 적합한 립지를 '통천갑등'과 '통천을등', '통천병등', '통지갑등', '통지을등', '통지병등', '통인갑등', '통인을등' 등 9개 등급으로 나누어 인삼산업의 고급화, 차별화 발전을 위해 기반을 다졌다.

을 제정했는데 이는 인삼산업의 고급화, 차별화 발전을 보장하고 '인삼 판매가격이 저평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서 인삼 재배 농가와 가공기업이 제품 품질을 더욱 중시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명확하고 투명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데 그 취지를 두었다.

망에 심은 인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재배

통화시는 인삼산업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발전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전통산업의 형태 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했다. 이로써 5대 계열, 800여종의 인삼제품을 개발, 생산했는데 인삼산업의 생산가치가 100억 원을 돌파했으며 과학기술 혁신 성과는 실용 실험실로부터 생산 설비로 성공적으로 옮겨져 더 넓은 시장으로 진입했다. 통화시는 인삼산업의 디지털화, 데이터 시각화, 제품 추적 가능성을 다그쳐 추진하기 위해 1,640만 원을 투자

해 인삼 전반 산업사슬의 디지털화 플랫폼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동북지역 최초의 특색 농업 전체 산업사슬의 플랫폼이자 전국 최초의 위성 원격탐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대상으로서 현지 인삼 총생산액, 총생산량, 총 재배면적 및 립지, 삼령 등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현과 향의 2급 연결을 실현하고 인삼 전반 산업사슬의 발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대상이 건설되면 플랫폼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정보 기술 수단을 통해 인삼 재배, 가공과 판매에 대한 전반 과정 모니터링을 실현하고 산업 정보, 발전 상황, 발전 추세에 대해 다차원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이는 통화시 인삼산업 전환 발전 건설의 '지능 중추'일 뿐만 아니라 인삼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신질 생산력으로 될 것이다.

인삼산업 보호법 제정

통화시는 토지 조건과 토양 청정도 조사 결과에 근거해 지방 기준인 <인삼 재배에 적합한 립지 등급별 통칙>

통화시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인대 상무위원회와 시정부 관련 부문은 1년간의 깊이 있는 조사연구를 거쳐 특별조례인 <통화시 인삼산업 고품질 발전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인삼산업 발전중의 문제에 직면하여 제도 혁신을 통해 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난제를 해결하고 인삼문화를 계승하며 인삼의 품질을 높이는 데 취지를 두었다.

<조례>는 통화시 지역내에서 인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브랜드를 육성, 보호하며 인삼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촉진하는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인삼산업이 직면한 구체적인 도전, 레를 들면 토지 개량과 료작, 립시동원 (简劳动员), 브랜드 창설과 감독관리에 대해 조례는 일련의 해결 방안을 제기했다. 인삼 중북 재배의 토지를 개선하고 삼곡료작 등 과학적인 재배 방법을 보급하며 인삼을 식품과 약품 개발에 사용하고 응용 분야를 넓히는 것을 장려한다. 인삼 브랜드 건설을 지원하고 기업과 농가를 도와 유명 브랜드를 육성하여 인삼제품의 품질 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제한된 인삼 재배 토지 자원의 사용을 규범화하여 인삼의 품질 안전을 확보한다.

<조례>를 통해 통화시는 법률 차원에서 인삼산업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제품 품질의 안전우환을 제거하며 토지자원 관리를 최적화하여 인삼의 품질과 브랜드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조례>는 통화시의 인삼산업에 전면적인 법률적 기틀을 제공했으며 현재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고품질 발전에도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안도현천연광천수산업단지 조업 재개



안도현천연광천수산업단지의 여러 기업이 연속 조업을 재개했다. 안도이리광천수회사는 정월 초엿새인 3일부터 전체 종업원이 일터에 돌아와 기계를 조율하고 청소했으며 안전생산 등 준비사업을 마쳤다. 4일부터 생산을 가동하여 당일에만 280톤을 생산하였는데 2월 한달간 4,800톤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미 생산을 시작한 연변아커광천수회사도 2월에 새 돌파를 가져오게 된다. 시장 수요와 생산 대행 수요를 일층 만족하기 위해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설

비 승격 개조에 나섰다. 6일, 독일 크랑스설비 기사가 현장에 와 최종 조율을 했고 20일부터 정식으로 생산에 투입하게 된다. 새 제품이 출시되면 기업의 새로운 수익 성장점으로 될 전망이다.

현재 안도현광천수산업단지내 이리, 농심, 통일, 야커, 취림, 삼강 등 6대 광천수 기업은 모두 조업을 재개했으며 2월에 3만 2,000톤을 생산, 3,700만 원의 생산액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화기자 / 사진 안도현당위 선전부

훈춘시 시설농업 활성화로 경제효익 창출

훈춘시 영안진 쌍신촌의 표준화 일광온실하우스에 들어서면 활짝 핀 벚꽃과 복숭아꽃 사이로 꿀벌들이 날아다니고 새빨간 딸기가 푸른 잎과 어우러져 유난히 소담해보이는, 생기 넘치는 봄경치가 눈에 들어온다.

영안진 쌍신촌 당지부 서기 겸 총장인 김명룡은 "현재 쌍신촌에는 21개의 하우스가 있는데 매 하우스의 면적은 1,000평방미터 좌우에 달한다. 영두하우스는 1만 3,000평방미터가량이고 딸기하우스는 3,000평방미터 정도에 달한다. 영두는 4월에 익어서 순차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며 현재 딸기는 이미 수확되어 시장에 출시됐다."고 소개했다.

들이 점점 더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는 귀옥강의 마음은 행복감으로 가득차 있었다.

훈춘시 판석진 류정촌의 스마트 온실 나타리버섯재배시범기지내의 나타리버섯도 좋은 자람세를 자랑하고 있었다. 재배농 귀옥강이 나타리버섯을 따서 상자에 넣고 포장하느라 바빠 돌아치고 있었다. 버섯

표준화 하우스에서는 현재 표고버섯, 나타리버섯과 옥황버섯을 주로 재배하고 있는데 2024년 표고버섯 생산량은 약 12만근이고 매출액은 약 40만 원에 달했다. 나타리버섯은 세차례에 걸쳐 8만개의 균봉(菌棒)을 재배했는데 총생산량이 20만근 좌우이며 판매액은 50만 원 좌우에 이른다. 귀옥강은 앞으로 맛버섯과 노루궁뎅이버섯 등 가치가 높은 균류를 많이 재배하여 수입을 늘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훈춘시 여러 향진의 시설농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도로 옆에 표준화 온실하우스들이 줄지어 서 있고 경제효익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시장에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들이 가득하여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연변발표

왕청현 제1서기 홍보 대표매장, 농산물 판매 활기

"여기는 길림성 왕청현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좋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상품은 왕청현의 유명한 목이버섯입니다." "꿀야오"를 누르고 '구독'도 해주세요. 꿀, 입쌀, 잣 등도 있습니다." 왕청현의 제1서기 홍보 대표매장이 지난해 12월에 정식으로 설립, 운영된 이래 오프라인 운영이 광호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생방송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왕청의 좋은 상품들이 네티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해당 대표매장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1개월 남짓한 시간내에 23만 원의 판매액을 실현하여 경제 및 사회 효익 이중 풍작을 거두었다.

왕청현의 제1서기 홍보 대표매장이 지난해 12월에 정식으로 설립, 운영된 이래 오프라인 운영이 광호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생방송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왕청의 좋은 상품들이 네티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해당 대표매장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1개월 남짓한 시간내에 23만 원의 판매액을 실현하여 경제 및 사회 효익 이중 풍작을 거두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왕청현의 제1서기 홍보 대표매장 1층은 오프라인 슈퍼, 2층은 생방송실인데 1층의 진렬대에는 각종 농산물과 특산물, 소개에 따르면 매장에서 판매하는 특색 농산물과 특산물의 산지에는 전 현 9개 향(진)이 망라되며 배추구진, 입쌀, 천교령진의 목이버섯, 계관향의 블랙야로니아 원액 등 22개 품종의 114개 농특산물이 포함되어 있다.

왕청현의 제1서기 홍보 대표매장이 지난해 12월에 정식으로 설립, 운영된 이래 오프라인 운영이 광호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생방송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왕청의 좋은 상품들이 네티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해당 대표매장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1개월 남짓한 시간내에 23만 원의 판매액을 실현하여 경제 및 사회 효익 이중 풍작을 거두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왕청현의 제1서기 홍보 대표매장 1층은 오프라인 슈퍼, 2층은 생방송실인데 1층의 진렬대에는 각종 농산물과 특산물, 소개에 따르면 매장에서 판매하는 특색 농산물과 특산물의 산지에는 전 현 9개 향(진)이 망라되며 배추구진, 입쌀, 천교령진의 목이버섯, 계관향의 블랙야로니아 원액 등 22개 품종의 114개 농특산물이 포함되어 있다.

왕청현 총주제 제1서기협회 회장 조록곤의 소개에 따르면 대표매

훈춘 키크랩 수입무역 성수기 맞이



당일 중국 백성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 훈춘정양무역유한회사 장소비 경리는 "주문량이 계속 늘어 매일 20여 트럭의 계를 수입하고 있다."며 "생체 키크랩은 생존환경과 운송조건에 대한 요구가 매우 까다로우 손실 위험이 높다. 세관의 즉각적인 서비스 보장으로 통관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화물 손실을 줄였으며 통관 키크랩은 아무리 늦어도 당일 립시 양식소에 들어갈 수 있고 24시간내에 비행기와 고속열차를 통해 북경, 상해, 광주, 심수 등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일 중국 백성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 훈춘정양무역유한회사 장소비 경리는 "주문량이 계속 늘어 매일 20여 트럭의 계를 수입하고 있다."며 "생체 키크랩은 생존환경과 운송조건에 대한 요구가 매우 까다로우 손실 위험이 높다. 세관의 즉각적인 서비스 보장으로 통관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화물 손실을 줄였으며 통관 키크랩은 아무리 늦어도 당일 립시 양식소에 들어갈 수 있고 24시간내에 비행기와 고속열차를 통해 북경, 상해, 광주, 심수 등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방송 전자상거래 업계의 왕성한 발전과 더불어 훈춘 해산물도 급행 열차를 타고 전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다. 훈춘 해후해산물거리의 한 수산점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생방송 플랫폼을 통해 전국 각지의 네티즌들에게 키크랩 등 해산물과 다양한 요리방법을 추천해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을 높이고 있다. 훈춘조정수산 운영책임자 조기는 평소에는 매일 50건씩 판매했는데 음력설 연휴 기간에는 더 많이 판매되었으며 플랫폼 팔로워수가 조장기의 1,000명 미만에서 현재 4만여명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수입 키크랩의 생존률과 신선도는 기업의 생명선이므로 훈춘세관은 키크랩의 빠른 통관을 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훈춘세관 감독관리2과 부과장 풍화정에 따르면 통관 능률을 높이기 위해 통상구에서는 '복색통

로'를 개통하고 7×24시간 예약 통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키크랩 도착 즉시 신고, 검사 즉시 통관하는 신속 통관 방식을 형성했다. 동시에 세관감사원은 스마트세관 건설을 깊어있게 추진해 신선한 수산물의 스마트 감독관리 모델을 전적으로 구축하고 통상구와 검사 장소간의 연동을 최적화함으로써 신선한 수산물 차량이 신속하게 검사 통관을 실현하도록 했다.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면에서 훈춘세관은 검역 감독관리와 실현실 검측 효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식품 안전을 전적으로 담당해 관리해 소비자의 허균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훈춘이 키크랩 수입의 금빛간판을 빛내는 데 힘을 보탰다.

/길림일보

루가조선족향, 전자상거래로 향촌 진흥에 노력

8일, 통화시 휘남현 루가조선족향은 방학 기간 집에 머물고 있는 대학생 및 퇴역군인, 촌의 치부 능수 등 40여명을 상대로 전자상거래 자주창업 강습반을 조직했다.

강습에 앞서 강습반에 참가한 수강생들은 휘남현전자상거래공공봉사중심을 참관했다. 사업일꾼들의 상세한 소개로 수강생들은 휘남현 전자상거래산업의 발전 현황과 혁신 모식에 대해 깊이 료해했다. 그들은 농산물기지를 참관하면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각종 상품에 대해 료해하고 기업의 운영방식, 제품 품종 및 공급망 등 전반 판매사슬에 대해 료해했다.

이어 진행된 강습에는 특별히 루가조선족향 묘가가 (苗家街) 촌 촌민이며 심수시전해우인공급사슬관리유한회사 법인인 류신량을 초청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식들을 강연했다. 강의는 리론과 실천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수강생들에게 전자상거래 자주창업, 동영상 제작 및 생방송 판매 등 내용



들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각종 인터넷 점포 개통 방식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수강생들이 제기한 질문에 세심하게 해답했다.

한편, 휘남현 상무국, 인사국, 문

어의 발전 방향과 주의사항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농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고 교류, 발언을 하면서 함께 발전 경로를 모색했다.

수강생 왕초는 "이번 강습은 정말 귀중한 배움의 시간이었다."면서 "줄곧 농간기를 리용하여 생방송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이번 강습에서 많은 실용적인 기술을 배웠다."고 말했다.

다음 단계에 루가조선족향은 실제 상황에 따라 촌민들에게 전자상거래 생방송 판매에 참여하도록 적극 호소하고 전자상거래 생방송 시범 계정을 정성껏 양성하여 향촌 전자상거래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강습을 계기로 루가조선족향 귀향 인재의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기능 양성 강습반을 더 많이 개최하여 루가조선족향 인재의 진흥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정현관기자